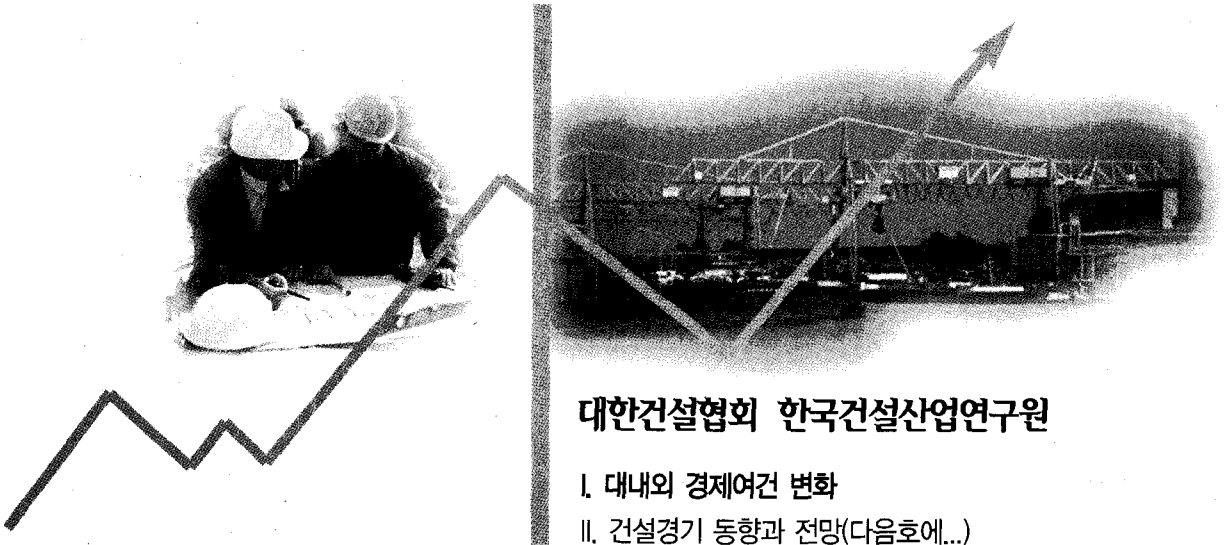


2002년 건설경기전망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I.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 II. 건설경기 동향과 전망(다음호에...)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 세계경제

세계경제, 지난해와 비슷한 2.5% 내외의 성장에 그칠 전망

지난해 2.4% 내외의 성장에 그친 세계경제는 금년에는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나 연간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2.5% 내외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지난해 상반기 중 예상보다 부진한 세계경제는 9월의 미국 테러사태 이후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들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음.

〈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추이 및 전망 〉



2002년 건설경기전망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E) |
|------|------|------|------|------|---------|
| 세계 | 2.8 | 3.6 | 4.7 | 2.4 | 2.4 |
| 미국 | 4.3 | 4.1 | 4.1 | 1.1 | 0.7 |
| 일본 | -1.0 | 0.7 | 2.2 | -0.4 | -1.0 |
| 유로지역 | 2.9 | 2.6 | 3.4 | 1.5 | 1.2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ec. 2001

주요국별로 보면, 먼저 2000년 중 4.1%나 성장한 미국경제가 지난해 1.1%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의 회복기미에도 불구하고 금년전체로는 1% 내외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미국 경제는 최근 들어 경기침체국면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지난해 말 이후 산업생산의 감소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소비도 소매판매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전기비연율 0.2%를 기록하였음. 또한 금년 1월 들어서는 실업률이 5.6%로 지난해 12월의 5.8%에서 8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하였음.

●한편, 기업들의 재고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신뢰지수 및 구매관리자 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가계 및 기업의 기

대심리가 계속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높은 수준의 소비자 부채와 기업 부채의 부담을 안고 있어 가계와 기업의 기대심리 호전이 소비와 투자로 연결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임.

지난해 마이너스 0.4%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경제도 금년에는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면서 성장률이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지난해 일본경제는 기업 도산의 증가(2000년 22.3% 증가, 2001년 2.1% 증가)와 실업률 상승 등으로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수출도 부진이 심화되고 있음.

●투자도 자본재출하가 계속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주택착공호수의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부부채 비율, 제로수준의 금리 등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여지가 제한됨.

●다만, 최근의 엔저로 일본의 수출이 호전될 경우 경기회복에 다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부진을 감안할 경우 경기회복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2002년 건설경기전망

한편 유로경제도 지난해 1.5% 성장에 그친 데 이어 금년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1%대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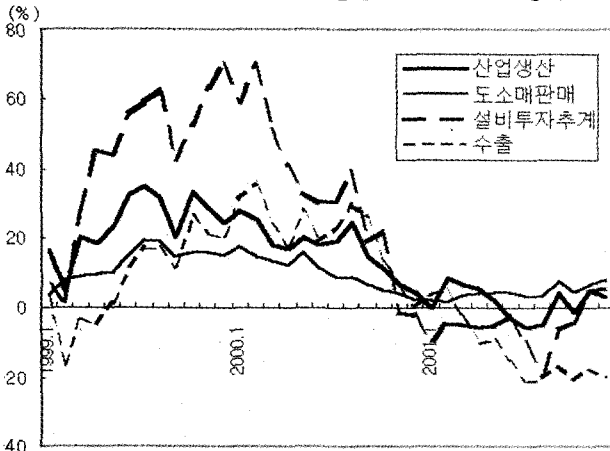
●최근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산업생산과 수출이 부진을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기업과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도 다소 호전되고 있음.

이렇게 볼 때 세계경제는 최근 들어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경제의 회복세 본격화 여부, 엔저와 일본경제의 향방, IT산업의 회복 정도 등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2. 국내경제

(1) 동향

〈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추이 및 전망 〉



국내경제, 최근 들어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

2000년 하반기 이후 경기하강국면에 접어든 국내경제는 금년 들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음.

●지난해 3/4분기 국내경제는 예상보다 높은 전년동기비 1.8% 성장한 데 이어 4/4분기에는 2%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4/4분기 중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 보면, 도소매판매액이 전년동기비 6.3% 증가하여 소비가 9월 미국 테러 이후에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그 동안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 설비투자도 4/4분기에는 1.7%의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건설투자도 건설수주와 건설기성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3/4분기에 이어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 | 2000년 | | | | 2001년 |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국내총생산 | 12.6 | 9.7 | 9.2 | 4.6 | 3.7 | 2.7 | 1.8 | - |
| 산업생산 | 23.6 | 18.4 | 19.8 | 7.6 | 5.0 | 1.6 | -1.8 | 2.3 |
| 도소매판매액 | 15.1 | 13.3 | 8.0 | 3.9 | 2.5 | 4.4 | 4.8 | 6.3 |
| 설비투자추계 | 59.3 | 34.8 | 29.5 | 5.7 | -6.2 | -4.7 | -12.3 | 1.7 |
| 수출(통관기준) | 29.8 | 21.5 | 26.5 | 6.1 | 2.1 | -11.6 | -19.7 | -19.2 |
| 소비자물가 | 1.5 | 1.4 | 3.2 | 2.8 | 3.6 | 5.0 | 4.2 | 3.4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002년 건설경기전망

4/4분기에도 호조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이러한 내수 호조와는 달리 수출의 경우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4/4분기 중에도 19.2%의 높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음. 금년 들어서도 수출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비록 수출이 1월 중 8.9% 감소하여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나 이는 설시기의 이동(설 시기: 2001년 1월, 2002년 2월)과 2001년 12월의 현대자동차 파업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효과를 제거할 경우 1월 중에도 20% 가까운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임.

(2) 전망

국내경제는 금년에 4%내외의 성장 전망

지난해에 3%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경제는 금년에도 내수 증가에 힘입어 완전한 성장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4%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는 먼저 국내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금년에도 건설한 증가세를 지속함으로써 성장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임.

● 민간소비는 성장둔화, 실업률 상승 등 실질구매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금년에도 4% 이

〈 주요기관 국내경제 성장 전망 〉

| 구분 | 2000년 | KDI | | 한국은행 | | 삼성 | | LG | | IMF | |
|----------|-------|------|------|------|------|------|------|------|------|------|------|
| |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2001 | 2002 |
| 경제성장률(%) | 8.8 | 2.7 | 4.1 | 2.8 | 3.9 | 2.1 | 3~5 | 3.0 | 3.5 | 2.6 | 3.2 |

자료 : KDI, 「2001년 4/4분기 KDI 경제 전망」, 2001. 12.
 한국은행, 「2002년 경제 전망」, 2001. 12.
 삼성경제연구소, 「2002년 경제전망」, 2001. 10. 5.
 LG경제연구원, 「2002년 국내외 경제전망」, 2002. 2.

상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심리 지수도 금년 1월중 106.7을 기록하여 지난해 12월(100.9)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100을 상회하여 소비자들이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설비투자는 수출부진과 저조한 가동률 등으로 금년에도 크게 호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수출의 경우는 세계경기 회복 지연으로 금년 상반기까지는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이후에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